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사업 추진

임실군, 51개소 조리원 인건비·식재료비·위생비 등 1억5555만원 지원

임실군이 민선 6기 공약사업이자, 도정 핵심시책인 삼각농정의 일환으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사업을 추진한다.

마을공동급식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급식 준비로 인한 영농작업 중단으로 생산성 저하 및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 여건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대상은 51개소이며, 지원내용은 마을당 조리원 인건비, 식재료비·위생비 등 305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억5555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민선6기 공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 32개 마을에 이어 올해 51개 마을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마을공동급식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특화된 서비스로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촌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매우 필요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인 복지정책을 발굴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새로운 놀이공원 조성 위한 리모델링 추진

남원시, 어린이 공원내 미니 워크파크 조성 등 9억원 투입

남원시는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놀이공원 조성을 위해 도심내 어린이공원에 미니 워터파크를 조성하고, 시설물을 일제 정비 하는 등 대대적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부영5차양 어린이공원(도통6호)에 7억원을 투입 '미니 워터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며, 용성중원(도통3호), 도통중 행정복지센터(도통7호)에는 '포장 등 기반시설과 휴게공간 재정비'를 위해 2억원 투입하는 등 리모델링을 위해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어린이공원 시설물이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등 단순 획일적인 공간이었으며, 각종 부대시설은 노후화되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흥미저하로 이용율이 저조함에 따라,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놀이공간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으로 온가족이 함께하는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시과에서는 미니 워터

파크 조성 등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및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놀이공원내 도입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하여 디자인 선정 및 공원 이름을 짓는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원시는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여 워터파크 조성을 확대해 나가는 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농업인대학 교육생 23일까지 모집

임실군이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경영인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농업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교육생을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농업인대학은 임실 복숭아 명품화를 위한 복숭아반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반 2개 과정을 개설하여 합리적인 농장 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하는 농업인대학은 3월에

서 11월까지 매주 1회씩 최신 농업기술정보, 선진농장현장 벤치마킹, 외부전문강사를 활용해 연간 100시간 과정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 실시한다.

농업인대학은 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이다.

농업인 대학은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9개 과정, 62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난 해에는 버섯반과 생활농업반 2개 과정을 20여회에 걸쳐 100시간이

상 운영해 FTA 등 시장개방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가로 육성했다.

교육신청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입학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읍·면 농업인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 인력유형성에 방문하여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기간 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이메일(email)신청도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 지역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TV로만 보던 올림픽, 현장에서 직접 느껴요"

남원시 드림스타트 어린이, 동계올림픽 현장 방문

강원도 평창에서 제23회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 드림스타트 어린이들이 최근 올림픽 현장을 방문했다.

24명의 아이들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 현장을 가기 위해 꼭두새벽부터 눈을 비비며 출발했다.

아동들은 92개국 2,925명 선수들이 참여해 15종목으로 금,은,동메달을 따기 위해 자신의 힘을 다해 경기를 하고 있는 평창 올림픽 경기장에서 자원봉사자,인솔자 등 보호아래 크로스컨트리스키 경기를 현장에서 관람하였고, 다양한 모습으로 참가한 외국인 선수들도 볼 수 있었다.

아동들은 경기장에서 동계올림

픽 경기종목인 투지,바이애슬론, 봅슬레이,피겨스케이팅,스키점프 등 다소 생소한 종목에 대해 설명도 들었고 올림픽 홍보체험관을 견학해 올림픽에 대한 역사에 대해 배우고 VR체험, 4D체험도 했다.

TV로만 볼수 있었던 거대하고 웅장한 올림픽 경기장을 직접 간다는 기대에 발새 설레었다는 한 아동은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갖게되었고 올림픽정신과 문화를 경험 할 수 있게 되어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체험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임실군이 노후화된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19일부터 23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조기폐차가 필요한 차량 50여대이다. 신청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해 군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 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이다. 단, 신청접수 전 폐차된 차량은 제외된다.

신청된 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보조금액 기준으로 2001년 ~ 2005년 제작된 차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을, 저소속증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공헌과 약자에게는 30%, 화물차(1톤 이상)40%, 일반차량 30% 순서로 각각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사회적 공헌, 약자 및 화물차 신청자가 배정불량에 미달 시 일반참여자에 포함되어 신청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4년 연속 국가암검진 사업 분야 1위

남원시보건소는 2017년도 지자체동 평가 관련 국가암검진 사업 분야에서 도내 1위, 전국 4위의 성적을 달성하였다. 본 평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국가암검진 수검률을 평가하는 것으로 작년에 이어 연속 4년간 도내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국가암검진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을 조기 발견, 적기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검률 향상을 위해 국가암검진 수검 안내 전화 및 우편 발송, 각종 행사 등을 통해 홍보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 620-7926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꿈나무 아동 돌봄센터 설치

순창군이 '꿈나무 아동 돌봄센터'를 설치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올해 (구)보건의료원 건물에 1억원을 투자해 '꿈나무 아동 돌봄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꿈나무 아동 돌봄센터는 맞벌이 부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과 후에 아이들을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젊은 층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며 구 보건의료원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역의 민3세 ~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유치원, 초

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과 부모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시로 맡길 수 있는 일시 돌봄 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오후 돌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저녁 돌봄으로 구분 운영하며, 토요일에도 아침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방과 후 숙제지도, 부모교육, 놀이교실, 공동육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등·하원 서비스도 제공해 복지 이용 편리성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